



[협회소식]

◆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유닛로드시스템 보급의 확산을 통한 산업 물류의 혁신 추구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www.kopal.or.kr, 회장 김정식)는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아시아 미래물류시스템’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처음 개설한 아시아 유닛로드 스쿨(ULS)을 확대, 지속시킴으로써 아시아 역내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19일 마포구 도화2동 한국물류협회 대회의실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협회는 올해 아시아 파렛트·컨테이너 표준화를 바탕으로 하는 ‘아시아 미래 물류 시스템’ 구축사업에 힘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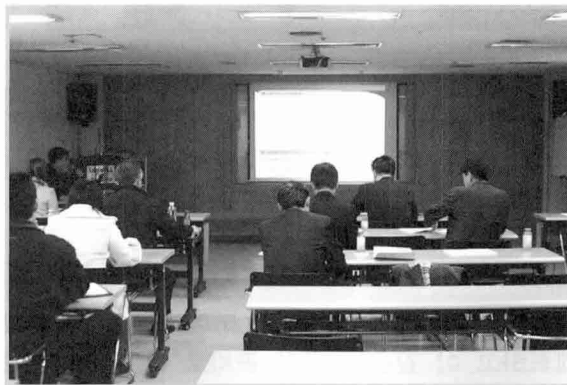
지난해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60개월간 총 사업비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되는 '미래물류시스템을 위한 일관수송부문의 표준화 사업'은 산업자원부와 한국표준협회 발주사업.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년도 사업에 이어 올해 8월 1일부터 1년간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여 아시아 역내 일관수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과 국제 표준 파렛트 제·개정 기관인 ISO(국제표준화기구)에 대한 제안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정식 협회장은 "그동안 세계 파렛트 표준은 기존 구주·미주 표준의 영향하에 있었다"면서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 맞는 표준규격 제정을 제안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공동활동을 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연수생 33명을 대상으로 제1회 아시아 ULS를 개설, 주목을 받은 바 있는 협회는 올해 제 2회 스쿨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설하게 된다.

김정식 협회장은 "지난해 제1회 ULS는 큰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ULS를 개설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협회는 국제적 ULS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면서 국내 산업물류 혁신은 물론 아시아 물류발전을 위한 ULS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대상업체 설명회 2월 27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서 진행되어



환경부와 지난 2007년 12월 28일 체결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사후관리(안)이

마련되어, 2월 27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의실에서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본 설명회를 통하여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제조업체들은 폐기물 부담금 문제를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앞으로도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제조업체를 대표하여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제도가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 ISO/TC51 공동협력을 위한 동경회의 2월 28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협력회의 가져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와 (사)일본파렛트협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 3일간 일본 동경의 (사)일본파렛트협회 내 회의실에서 한·일 ISO/TC51 공동협력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한·일 양국의 2008년도 ISO/TC51 공동협력방안을 협의하는 회의로써 이번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ISO/DIS 8611-2 Technical Comment와 향후 잔류힘률 시험 계획, 그리고 신규작업항목 (Pallets with Superstructure)에 대한 협의 및 제안 등의 안건이 다루어 졌으며, 이를 중국 및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P회원국과 함께 적극 협력하여 ISO/TC51에서 아시아 지역의 제안 의견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